

터의 문제는 좀 더 쉽게 해결되어 나갈 것으로
확신하며 간호원은 완성된 전문직 간호원의 모
습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THE ANA'S DEFINITION OF NURSING PRACTICE

The practice of professional nursing means the performance for compensation of any act in the observation, care, and counsel of the ill, injured, or infirm, or in the maintenance of health or prevention of illness of others, or in the supervision and teaching of other personnel, or the administration of medications and treatments as prescribed by a licensed physician or dentist; requiring substantial specialized judgment and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of biological, physical, and social science. The foregoing shall not be deemed to include acts of diagnosis or prescription of therapeutics or corrective measures.

WHAT MAKES A NURSE PROFESSIONAL?

1. Her standards of performance and personal achievement are high Integrity in nursing practice is very important to her.
2. She seeks constantly to improve her technical and interpersonal skills through study 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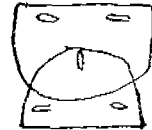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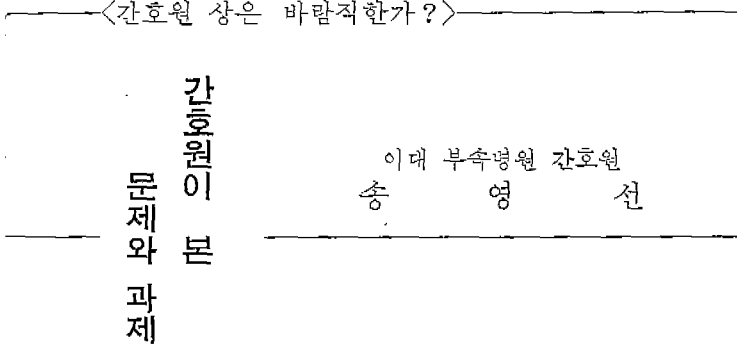
research.

3. She uses Sound judgment and discretion in dealing with patients and their families.
4. She is interested in the whole patient, his family, and his community.
5. She is able to deal competently with crisis situations.
6. She puts what is good for professional service to patients ahead of self-interests.
7. She coordinates and evaluates nursing services in cooperation with members of other health services.
8. She is not overly concerned with the materialistic aspects of nursing.
9. She expects to find satisfaction and spiritual value in her work.
10. She feels responsible for the status of nursing and tries to advance-never retard-it.
11. She has inner resources to which she can turn for renewal of faith and courage. when she is weary and discouraged.
12. She is proud of her profession and considers it on a par with medicine, law, or any other vocation practiced for compensation and which, at the same time, contributes in its own unique way to the welfare of humanity.

Cordelia W. Kelly, R.N., B.S.

"Dimensions of Nursing" 1963 The Macmillan Co. p. 12-21

<간호원 상은 바람직한가?>



항상 어느 분야에 있어서나 지난 일을 돌이켜 보고 문제점을 발견함으로써 앞으로의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 하겠다. 특히 해

결해야 할 많은 절박한 과제와 문제들을 당면하였다고 생각하는 우리간호계에 있어서 이렇게 "간호교육의 혁신" 이라는 어떤 도약적인 느낌

을 갖게 하는 제목하에 생각을 나누게 된 것에 대해 꼭 의의를 느끼는 바입니다. 문제점을 발견하기 위한 이 자리에 제가 서게 된 것은 아마도 제자신의 많은 부족한 점, 문제점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즉 자신의 그러한 점을 잘 지적하리라는 생각에서 보내주신 것으로 생각하여 미비한 점 스스로 깨달았으나 그 나름대로의 의의가 있을 것 같아 마음놓고 느낀 그대로의 솔직한 심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는 입학전 및 학생으로서 지냈던 간호원에 대한 상과 또한 약 2년간 실제 간호원으로서 가졌던 경험을 토대로 그 사이에 일어났던 겹 및 그러한 겹 중에서 특히 간호교육에 관련된 점이라고 생각되는 문제 및 과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간호학과에 입학하기 전에 지냈던 간호원에 대한 이미지(Image)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간호학과를 택한 사람이라면 거의 모든 사람이 입학전에 간호직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Image)를 가졌었으리라고 생각 됩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에는 단순히 그렇지만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즉 저는 중학생때 가족 한 사람이 장기 입원생활을 한 경험이 있어서 어느 정도 간호원의 실태를 본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까지 지켜왔던 저의 의료직 전반에 대한 동경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높고 의의있는 직업이라는 막연하나마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있었던 것 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가 관념적으로만 지냈던 그야말로 천사같은 간호원의 상과의 너무나 커다란 겹에서 놀랐던 일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더우기 그때의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슬픔 때문에 더욱 너리에 깊이 새겨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 저는 간호원으로부터 의료보조를 행하는 Technician이라는 인상외에는 받을 수

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나름대로 간호의 순수한 상은 보지 못했더라도 간호 어디엔가엔 꼭 있으리라는 막연한 생각만은 결코 버릴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논하고자 하는 논제를 비록 분의한으로서 이지만, 저는 이미 그 당시 절실한 과제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엔 별로 병원과 인연이 없이 지냈으며 더구나 제 자신 간호원이 되고자하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대학의 진로를 결정해야 할 시기에 와서야 택할 수 있는 많은 과 중의 하나로서 간호학과를 택하게 되었을때 비로서 간호직에 대한 심각한 생각을 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 많은 학과 중에서 유독 간호라는 어휘가 제게주는 신성한 이미지(Image)에 다시금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중학생때 느꼈던 그 실망 때문에 더욱 간호의 그 무엇을 학문으로서 연구하여 찾으리라는 기대속에 간호학과를 택하는데 추저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당시 차츰 간호학과에 대한 소위 부—口(Boom)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권고를 받은 사실도 간호학과를 택하게 된 동기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겠으나 결국 택하게 된 것은 제 자신의 철학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가끔 의문인 점은 단일 일 그때에 제가 지냈던 간호원에 대한 그 숭고한 이미지(Image) 대트 현실이 Ideal하게 보여졌던들 과연 간호학과를 택했을 까 하는 것 입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현실이 긍정적인 상에 대한 탐구심을 더욱 갈망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금 여러분께 이해를 요하며 이야기를 계속할 것이 있다면 이 자리에 선제 자신이 Ideal하게 간호직을 수행하는 간호원이라면 문제점을 밝히려 구태어 이 자리에 설 필요도 없을 것이

더 썩 달라는 부탁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 미숙한 발언이라고 생각 되더라도 견해를 달리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도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아까의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한 긍정적인 상을 탐구코저 간호학과에 입학하여 4년간을 지내왔습니다. 입학당시의 찾고자 했던 그 무엇을 찾기위해 제 자신 그렇게 나태한 대학시절을 보낸것 같지는 않았읍니다. 가능한 한도내에서의 모든 노력을 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간호학 4년을 공부한 끝에 무엇을 찾았는가고 누가 묻는다면 저의 대답은 완전히 긍정적인 수 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4년간 공부를 하였기에 기념적인 문구는 모두 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간호의 의미가 본질적으로 변함이 없으나 시대의 변천에따라 그 개념에 있어서 이해를 달리하게 되었고 현재인 질병을 다루는 것이 아니며 더군다나 진료보조라는 것은 간호라는 커다란 업무 가운데 적은 부분에 지나지 않고, 간호직은 전문직으로서 환자의 요구에 기초를 둔 환자중심 즉 인간중심의 전인간호여야 한다는 현대 간호 철학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참으로 Ideal 한 간호에 대한 문구라 생각했으며 과연 간호에 대해서 제가 찾고자 했던 그 무엇을 찾은듯한 희열에 빠져보기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졸업을 하고 실무에 임하게 되었을 때에, 그 아름다운 문구와의 갭을 당했을 때의 감정은 중학교 시절 느꼈던 실망에 비유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 경우에 있어서 실무를 하면서 가장 딜렘마에 빠뜨렸던 것은 간호직에 대한 전문직으로서의 회의였습니다. 즉 실제 간호업무를 수행하면서 절실히 느낀 점은 간호업무 수행의 종류며 절차 순서상으로서 그 어느 것이나 전문의료인

의 영향을 받지않고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을 뿐 아니라, 그러한 말하자면 의료 보조행위를 수행하기에도 급급한 근무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서 근무 조건을 논할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내적인 문제해결과 최선의 조건하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의적인 대우개선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면야 그 이상 바랄 것은 없겠습니다. 다만 여기가 희망 사항만을 논하고자 하는 자리가 아니며 실제적으로 가능한 한의 방법부터 모색되어야 하리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내적인 문제점의 해결을 선행시켜야 하리라는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즉 제가 간호학을 공부하면서 항상 배겨되는 것은 의학지식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 독창성을 회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간호업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료 보조행위 이외의 순수한 간호행위를 얼마나 실제 행해왔던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전혀 순수한 간호를 해 오지않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아는 새 모트는 새 야마도 모든 간호원에 의해 간호는 행해졌을 것입니다. 단지 그것이 체계화되지 못하였고 표준화되지 못했던 이유로 누구에게나 객관시 되지 못하였고 인정받을 수 없었던 점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던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스스로의 모순성을 그냥 내포한 채 남에게서의 인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스스로의 실력이, 결과가 과연 누구에게나 보편 타당성을 느끼게하고 객관시 될 수 있을 때에 만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우리 간호업무가 제대로 독자적으로 설 땅이 마련되어야 하

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의료 보조행위는 그일 부에 지나지 않을 명실상부한, 우리가 누구의 지시나 영향으로 부터도 벗어나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업무를 마련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견해의 차이가 있을 것 입니다.

간호의 엄연한 독자적 분야가 있는데 찾지를 않고 지체적인 것을 담보하면서 할 일이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저를 나무라시는 분들도 많으 실 줄 압니다. 학생으로서 실습할 때마다 들던 이야기였으니까요. 야단을 맞을 때 마다 생각되 기로는 아직 학생이니까 내가 발견할 수 없는 점이 많을 것이며, 실무에 임하게되면 그래도 무언가 독자적인 간호업무를 찾을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속에 있었읍니다.

그러나 저는 약 2년간의 근무를 돌이켜 볼 때 에 거의는 의료 보조행위를 하면서 되도록이면 전인간호의 이념을 적용코저 노력을 했다고는 자부할 수 있지만 참으로 독자적인 간호업무를 Ideal하게 행하지는 못했었으며 순수한 간호업 무에 대한 체제가 잡히지 않았고 다시금 학생으 로라면 여전히 저는 3년전과 마찬가지로 꾸중을 들을 수 밖에 없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저의 문제를 갖고 저는 몇가지 앞으로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밝히는 몇가지 점 이 외에도 수 많은 과제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나 가장 근본적이라고 본 점, 두가지 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까지 산만하고 체계가 잡히지 않은 채 의료보조업무와 혼동되어 실시되어 왔던 간호의 업무분야를 독립시켜 체계화 하자는 견해 로서 그것은 간호교육이 학문적인 배경을 주축 으로 이끌어 나아가야할 과제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각 분야마다의 간

호진단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함으로서 체계화 해야 겠으며 간호업무에 대한 Order는 간호원에 의해서 Originate 되어져야 하리라는 생각입니다. 간호업무에 대한 Order 체계가 기준화되어 잘 실시되고 있는 병원은 아마도 제가 보기에 는 별로 없는 듯 싶습니다. 심지어는 Dr. Order Sheet 에 서 간호업무에 대한 Order가 엄연히 있고 아무런 비판도 없이 그것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을 흔히 보았습니다.

간호직이 전문적이려면, 간호업무가 전문적 업무라면, 실로 모순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 입니다. 물론 전문직 상호간의 교류 및 협조는 바람직 하겠으나 이런 경우 결코 그것이 상호 협조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정에서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만큼 우리 나름의 Order 체계가 없는 만큼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눈을 우리의 밖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문제를 솔직히 볼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현 단계로서 실현 가능성이 너무나 모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기 까지의 많은 문제점도 모르는 바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겪어 나아가야 할 과제라 생각 되어 말씀드린 것이었읍니다.

둘째로 생각되는 과제로는 간호업무에 있어서 전공 분야가 있어야 하리라는 것입니다.

현재 각 분야마다 폭발되는 지식의 결과로 점차 세분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견해의 차이가 있으므로 오히려 모든 학문간의 Integrate를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각기 세분화된 기능을 수행하면서 그들끼리의 교류 및 협조를 뜻하는 것이지 결코 한 개인의 업무가 가중되어져야 하리라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간호분야에 있어서도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간호업무의 양적, 질적인 비대는

구태어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더라도 이미 선배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듯 합니다. 말은 분야의 양은 그때로 둔 채 질적으로 양적으로 분야 마다의 요구되는 것이 증가된다면 평형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것은 쉽게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더우기 단지 질병만을 다루는 것이 간호가 아니며 환자의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 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환자중심의 포괄적 간호의 개념에 입각해 볼 때 또한 불가피하게 연관술 지니고 일을 해야만 하는 다른 여러 학문의 발달을 생각해 볼 때 엄청나게 증가되어야 하고 되어질 간호업무의 양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를 분류하여 전공분야를 세분화 하지 않고는 도저히 한정된 우리의 능력으로서 감당치 못 할 일이라고 생각 됩니다.

더우기 병원에서 각 과 마다의 Rotation 은 전혀 개인의 취미나 능력을 위주로 한다가 보다는 업무량을 위주로 행해지고 있음은 흔히 보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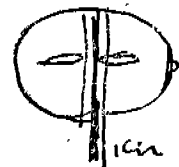
입니다. 즉 힘든 Ward 에 몇달 있었으니 좀 한 가한 Ward 로 보내준다는 식의 무사려한 처사가 행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범론에 해당되는 이야기로서 성급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으나 원칙적으로 전공분류가 이루어지더라도 반드시 내과간호, 외과간호, 소아과간호 식으로 나누어야만 한다는것은 아니며, 원칙적인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더 나은 Ideal 한 전공분야의 구분을 생각해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호업무에 대한 Order 체계의 정상화 및 간호전공분야의 구분의 두가지 과제를 말씀드리며 저의 이야기는 끝마치기르 하겠읍니다.

이 이외에도 임상에서의 개선점을 논하고저 한다면 끝없이 많은 점을 지적할 수 있겠읍니다만 오늘은 "간호교육의 혁신"이라는 Title 하에 의견을 나누는 만큼 교육에 관련된 개선점중 가장 근본적이라 생각되어 두가지 과제를 제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간호원 상은 바람직한가?>

문제와 과제	간호원이 본	성모병원 신경외과 간호원 문 숙 회
--------	--------	--------------------------------------



필자는 최근(1972년 2월)에 졸업한 간호원으로서 10개월도 못되는 임상경험을 되새겨 보면서 타인이 보는 간호원이 아니고 간호원 자신이 보는 간호원상을 너무 주관에 흘렸거나 보편·타당성이 없을까 염려하면서도 솔직하게 써 나가면서 여러문제와 발견과 해결을 시도하고자 한다.

우리의 간호사업이 구미식 간호, 일본식 간호의 두 조류를 타고 질적이나 양적으로 괄목할 만치 발전한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다. 그러나 남존여비의 사상과 남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론을 천시하는 유교적사상이 뿌리 깊게 박힌 한국사회에서는 아직도 사회의 외식 길이에서는